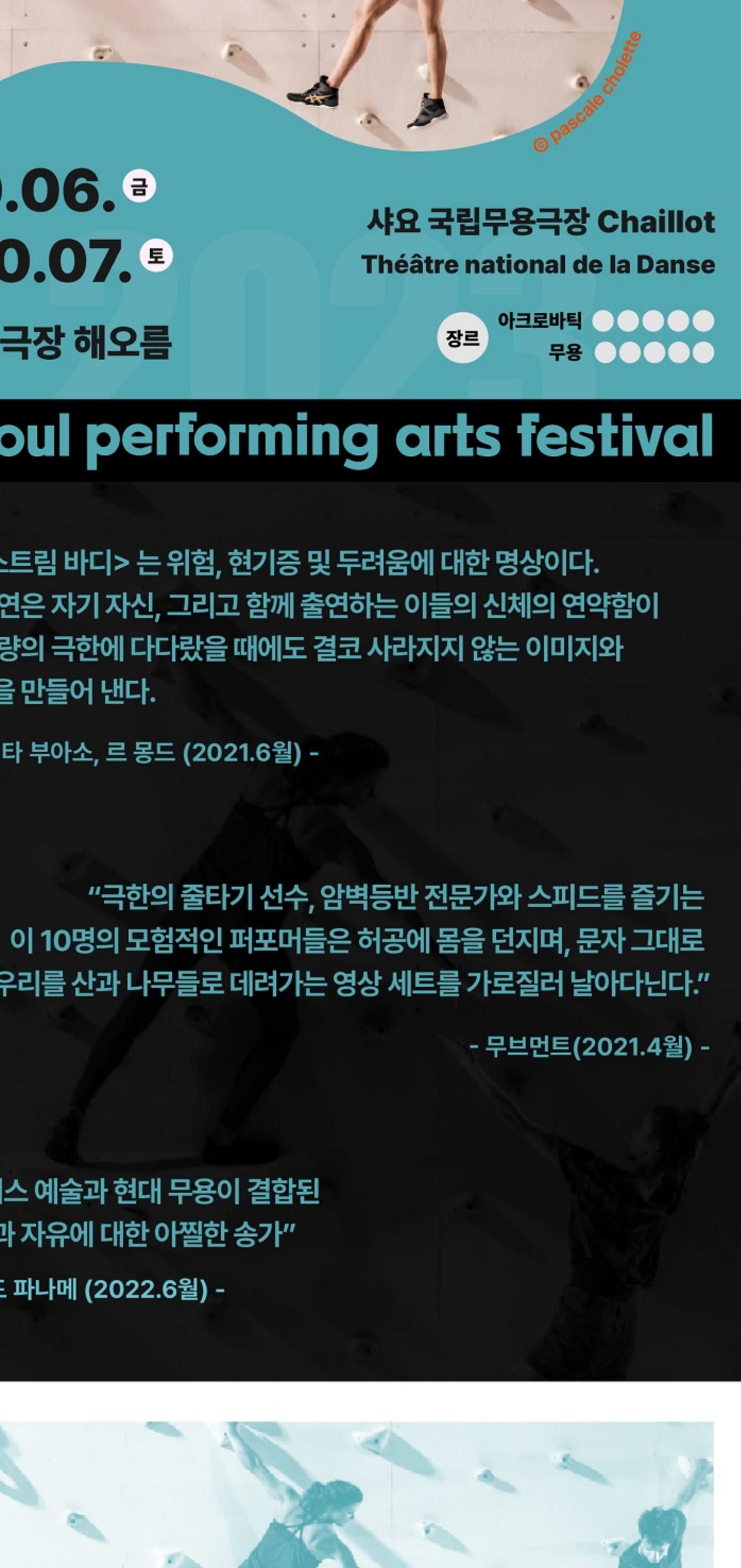


# 익스트림 바디 CORPS EXTRÊMES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  
2023-2024



10.06. 금  
- 10.07. 토

국립극장 해오름

샤요 국립무용극장 Chaillot  
Théâtre national de la Danse

장르 아크로바틱  
무용

seoul performing arts festival

<익스트림 바디>는 위험, 현기증 및 두려움에 대한 명상이다. 이 공연은 자기 자신, 그리고 함께 출연하는 이들의 신체의 연약함이 그 기량의 극한에 다다랐을 때에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이미지와 조각을 만들어 낸다.

- 로지타 부아소, 르 몽드 (2021.6월) -

“극한의 출타기 선수, 암벽등반 전문가와 스피드를 즐기는 이 10명의 모험적인 퍼포머들은 허공에 몸을 던지며, 문자 그대로 우리를 산과 나무들로 데려가는 영상 세트를 가로질러 날아다닌다.”

- 무브먼트(2021.4월) -

“서커스 예술과 현대 무용이 결합된 해방과 자유에 대한 아찔한 송가”

- 필 드 파나메 (2022.6월) -

© pascale cholette

스포츠 혹은 예술, 정교한 하이브리드 무대 장치로 구현되는, 현실과 가상 세계의 교차로에서 펼치는 예술적인 움직임

<익스트림 바디>는 라시드 우람단의 “이륙, 부유(浮遊), 무중력 상태, 매달리고자 하는 욕망으로 촉발되는 매혹”을 나타내고자 했다.

익스트림 스포츠 경기 연습에 열중하는 두 상징적인 인물, 프랑스의 출타기 선수 나단 폴린(Nathan Paulin)과 스위스 클라이밍 선수인 니나 카프레즈(Nina Caprez)는 그들의 주 활동 무대에서 동떨어진 공연 무대에서, 8명의 아크로바틱 공연자와 함께한다.

## 작품내용

가벼운 몸짓과 공중 회전에 특화된 ‘특별한 자유’를 사랑하는 이들은, 오늘날의 세상에서 이카루스의 꿈이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된 구성원들이다. 이들은 하늘과 땅 사이, 그리고 무대 뒤편에 세워진 거대한 암벽에서 점진적으로 움직임의 영역을 진전시킨다. 긴 빗줄은 높은 곳을 가로지르고, 무대는 종종 거대한 스크린으로 바뀌어 나단 폴린과 니나 카프레즈가 활동하는 멋진 자연 경관의 이미지가 투사된다.

이 뛰어난 선수들의 내레이션은 개인의 연습 및 수행에 대한 설명으로서 작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익스트림 바디>는 다양한 기교들로 표현되는 안이한 매력을 내세우기보다는, 오히려 공허함을 불러일으키는 실존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차원에 도달하고자 한다. 현실에 맞을 내리는 동시에 삶보다 더 친밀하고 더 큰 꿈의 세계로 향하는 퍼포먼스는 평범한 인간의 일상과는 거리가 먼 예술적인 세계를 조명한다.

## 라시드 우람단

콘셉트

Rachid Ouramdan

라시드 우람단은 열두 살 힙합을 시작으로 춤의 영역에 처음 발을 디딘 이후, 고전 및 현대 무용 관련 집중 과정을 수료했다. 1990년대 초, 무용에 전념하기 위해 생물학 과정을 중퇴하고 앙제(Angers)의 국립 무용 센터(Centre national de danse contemporaine)에 들어갔다. 퍼포마이자 안무가로서 멕 스튜어트(Meg Stuart), 오딜 뒤복(Odile Duboc), 에르베 로브(Hervé Robbe), 알랭 부파르(Alain Buffard), 크리스티앙 리조(Christian Rizzo), 줄리 니오슈(Julie Nioche), 엠마누엘 휘인(Emmanuelle Huynh) 등과 작업했다.

라시드 우람단의 창작물은 구조화된 안무를 염두에 두지 않고, 대신 개인의 경험과 감정을 중심으로作品을 제작한다. 그의 작품은 다양한 장르와 장소에서 활동하며, 주로 현대 무용, 퍼포먼스, 그리고 드라마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의 작품은 주로 현대 무용, 퍼포먼스, 그리고 드라마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 공연정보

공연일정 10.06. FRI 7:30pm  
10.07. SAT 3pm

장 르 아크로바틱  
무용

콘셉트 라시드 우람단

공연장소 국립극장 해오름

관람연령 만 7세 이상(초등학생 이상)

소요시간 60분

초 연 2021. 6. 몽펠리에 댄스

국 가 프랑스

접근성 일부 장면에서 한글 자막, 영어 스크립트 제공

후원 DANCE REFLECTIONS BY VAN CLEEF & ARPELS INSTITUT FRANÇAIS

1920년 피르맹 제미에(Firmin Gémier)가 국립민중극장(TNP, Théâtre National Populaire)을 설립한 아래로 샤요는 건축학적, 역사적, 예술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창작자와 관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극장으로 자리잡았다. 2000년, 무용 예술을 포함하도록 프로그램을 확장했으며 2008년에는 "주로 무용을 중심으로 구축된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최초의 국립극장이 되었으며 2016년 샤요 국립무용극장으로 명명되었다.

샤요 국립무용극장의 미션은 동시대의 연극 및 무용 작품을 개발하는 것이다. 고전 및 현대 레퍼토리의 국내외 작품들을 선보이는 데 제한을 두지 않고, 광범위하고 다양한 청중의 문화적 가치 향상에 기여하는 새로운 작품을 만들고 이 미션을 완수하는 데 기여하는 모든 문화 및 예술 행사를 기획해 나가고 있다.

시즌 내내 국내외 작품을 선보이는 것 외에도, 극장 제작 및 초연 작품으로 전 세계 투어를 진행하기도 한다. 극장의 협력예술가들 및 예술감독 라시드 우람단의 제작 공연은 전 세계에서 매년 100회 이상 공연되고 있다.

© pascale cholette

## 샤요 국립무용극장

1920년 피르맹 제미에(Firmin Gémier)가 국립민중극장(TNP, Théâtre National Populaire)을 설립한 아래로 샤요는 건축학적, 역사적, 예술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창작자와 관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극장으로 자리잡았다. 2000년, 무용 예술을 포함하도록 프로그램을 확장했으며 2008년에는 "주로 무용을 중심으로 구축된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최초의 국립극장이 되었으며 2016년 샤요 국립무용극장으로 명명되었다.

샤요 국립무용극장의 미션은 동시대의 연극 및 무용 작품을 개발하는 것이다. 고전 및 현대 레퍼토리의 국내외 작품들을 선보이는 데 제한을 두지 않고, 광범위하고 다양한 청중의 문화적 가치 향상에 기여하는 새로운 작품을 만들고 이 미션을 완수하는 데 기여하는 모든 문화 및 예술 행사를 기획해 나가고 있다.

시즌 내내 국내외 작품을 선보이는 것 외에도, 극장 제작 및 초연 작품으로 전 세계 투어를 진행하기도 한다. 극장의 협력예술가들 및 예술감독 라시드 우람단의 제작 공연은 전 세계에서 매년 100회 이상 공연되고 있다.

© pascale cholette

라시드 우람단은 열두 살 힙합을 시작으로 춤의 영역에 처음 발을 디딘 이후, 고전 및 현대 무용 관련 집중 과정을 수료했다. 1990년대 초, 무용에 전념하기 위해 생물학 과정을 중퇴하고 앙제(Angers)의 국립 무용 센터(Centre national de danse contemporaine)에 들어갔다. 퍼포마이자 안무가로서 멕 스튜어트(Meg Stuart), 오딜 뒤복(Odile Duboc), 에르베 로브(Hervé Robbe), 알랭 부파르(Alain Buffard), 크리스티앙 리조(Christian Rizzo), 줄리 니오슈(Julie Nioche), 엠마누엘 휘인(Emmanuelle Huynh) 등과 작업했다.

라시드 우람단의 창작물은 구조화된 안무를 염두에 두지 않고, 대신 개인의 경험과 감정을 중심으로作品을 제작한다. 그의 작품은 주로 현대 무용, 퍼포먼스, 그리고 드라마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의 작품은 주로 현대 무용, 퍼포먼스, 그리고 드라마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 작품내용

콘셉트

Rachid Ouramdan

라시드 우람단은 열두 살 힙합을 시작으로 춤의 영역에 처음 발을 디딘 이후, 고전 및 현대 무용 관련 집중 과정을 수료했다. 1990년대 초, 무용에 전념하기 위해 생물학 과정을 중퇴하고 앙제(Angers)의 국립 무용 센터(Centre national de danse contemporaine)에 들어갔다. 퍼포마이자 안무가로서 멕 스튜어트(Meg Stuart), 오딜 뒤복(Odile Duboc), 에르베 로브(Hervé Robbe), 알랭 부파르(Alain Buffard), 크리스티앙 리조(Christian Rizzo), 줄리 니오슈(Julie Nioche), 엠마누엘 휘인(Emmanuelle Huynh) 등과 작업했다.

라시드 우람단의 창작물은 구조화된 안무를 염두에 두지 않고, 대신 개인의 경험과 감정을 중심으로作品을 제작한다. 그의 작품은 주로 현대 무용, 퍼포먼스, 그리고 드라마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의 작품은 주로 현대 무용, 퍼포먼스, 그리고 드라마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 pascale cholette

라시드 우람단은 열두 살 힙합을 시작으로 춤의 영역에 처음 발을 디딘 이후, 고전 및 현대 무용 관련 집중 과정을 수료했다. 1990년대 초, 무용에 전념하기 위해 생물학 과정을 중퇴하고 앙제(Angers)의 국립 무용 센터(Centre national de danse contemporaine)에 들어갔다. 퍼포마이자 안무가로서 멕 스튜어트(Meg Stuart), 오딜 뒤복(Odile Duboc), 에르베 로브(Hervé Robbe), 알랭 부파르(Alain Buffard), 크리스티앙 리조(Christian Rizzo), 줄리 니오шу(Julie Nioche), 엠마누엘 휘인(Emmanuelle Huynh) 등과 작업했다.

라시드 우람단의 창작물은 구조화된 안무를 염두에 두지 않고, 대신 개인의 경험과 감정을 중심으로作品을 제작한다. 그의 작품은 주로 현대 무용, 퍼포먼스, 그리고 드라마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의 작품은 주로 현대 무용, 퍼포먼스, 그리고 드라마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 pascale cholette

라시드 우람단은 열두 살 힙합을 시작으로 춤의 영역에 처음 발을 디딘 이후, 고전 및 현대 무용 관련 집중 과정을 수료했다. 1990년대 초, 무용에 전념하기 위해 생물학 과정을 중퇴하고 앙제(Angers)의 국립 무용 센터(Centre national de danse contemporaine)에 들어갔다. 퍼포마이자 안무가로서 멕 스튜어트(Meg Stuart), 오딜 뒤복(Odile Duboc), 에르베 로브(Hervé Robbe), 알랭 부파르(Alain Buffard), 크리스티앙 리조(Christian Rizzo), 줄리 니오шу(Julie Nioche), 엠마누엘 휘인(Emmanuelle Huynh) 등과 작업했다.

라시드 우람단의 창작물은 구조화된 안무를 염두에 두지 않고, 대신 개인의 경험과 감정을 중심으로作品을 제작한다. 그의 작품은 주로 현대 무용, 퍼포먼스, 그리고 드라마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의 작품은 주로 현대 무용, 퍼포먼스, 그리고 드라마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 pascale cholette

라시드 우람단은 열두 살 힙합을 시작으로 춤의 영역에 처음 발을 디딘 이후, 고전 및 현대 무용 관련 집중 과정을 수료했다. 1990년대 초, 무용에 전념하기 위해 생물학 과정을 중퇴하고 앙제(Angers)의 국립 무용 센터(Centre national de danse contemporaine)에 들어갔다. 퍼포마이자 안무가로서 멕 스튜어트(Meg Stuart), 오딜 뒤복(Odile Duboc), 에르베 로브(Hervé Robbe), 알랭 부파르(Alain Buffard), 크리스티앙 리조(Christian Rizzo), 줄리 니오шу(Julie Nioche), 엠마누엘 휘인(Emmanuelle Huynh) 등과 작업했다.

라시드 우람단의 창작물은 구조화된 안무를 염두에 두지 않고, 대신 개인의 경험과 감정을 중심으로作品을 제작한다. 그의 작품은 주로 현대 무용, 퍼포먼스, 그리고 드라마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의 작품은 주로 현대 무용, 퍼포먼스, 그리고 드라마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 pascale cholette

라시드 우람단은 열두 살 힙합을 시작으로 춤의 영역에 처음 발을 디딘 이후, 고전 및 현대 무용 관련 집중 과정을 수료했다. 1990년대 초, 무용에 전념하기 위해 생물학 과정을 중퇴하고 앙제(Angers)의 국립 무용 센터(Centre national de danse contemporaine)에 들어갔다. 퍼포마이자 안무가로서 멕 스튜어트(Meg Stuart), 오딜 뒤복(Odile Duboc), 에르베 로브(Hervé Robbe), 알랭 부파르(Alain Buffard), 크리스티앙 리조(Christian Rizzo), 줄리 니오шу(Julie Nioche), 엠마누엘 휘인(Emmanuelle Huynh) 등과 작업했다.

라시드 우람단의 창작물은 구조화된 안무를 염두에 두지 않고, 대신 개인의 경험과 감정을 중심으로作品을 제작한다. 그의 작품은 주로 현대 무용, 퍼포먼스, 그리고 드라마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의 작품은 주로 현대 무용, 퍼포먼스, 그리고 드라마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 pascale cholette

라시드 우람단은 열두 살 힙합을 시작으로 춤의 영역에 처음 발을 디딘 이후, 고전 및 현대 무용 관련 집중 과정을 수료했다. 1990년대 초, 무용에 전념하기 위해 생물학 과정을 중퇴하고 앙제(Angers)의 국립 무용 센터(Centre national de danse contemporaine)에 들어갔다. 퍼포마이자 안무가로서 멕 스튜어트(Meg Stuart), 오딜 뒤복(Odile Duboc), 에르베 로브(Hervé Robbe), 알랭 부파르(Alain Buffard), 크리스티앙 리조(Christian Rizzo), 줄리 니오шу(Julie Nioche), 엠마누엘 휘인(Emmanuelle Huynh) 등과 작업했다.

라시드 우람단의 창작물은 구조화된 안무를 염두에 두지 않고, 대신 개인의 경험과 감정을 중심으로作品을 제작한다. 그의 작품은 주로 현대 무용, 퍼포먼스, 그리고 드라마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의 작품은 주로 현대 무용, 퍼포먼스, 그리고 드라마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 pascale cholette

라시드 우람단은 열두 살 힙합을 시작으로 춤의 영역에 처음 발을 디딘 이후, 고전



© quentin chevrier

일렉트로

## 구현되는 퍼포먼스

www.oxfordjournals.org

© quentin ch

## 작품내용

영국 작가 제임스 그레이엄 발라드(J.G.Ballard) (<크래시 Crash> 및 <콘크리트의 섬 Concrete Island>의 저자)의 작품 세계, 그리고 개인적인 교통사고 경험을 통해 <플레시>는 충격에 잇따르는 정확한 순간, 시간이 멈추거나 팽창하는 것처럼 보이는 짧은 순간을 탐구한다.

그리고 그들이 차를 타고 운전하는 모습은 그들이 차를 타고 운전하는 모습과는 다른 듯한 느낌을 주었다. 차를 타고 운전하는 그들의 모습은 차를 타고 운전하는 그들의 모습과는 다른 듯한 느낌을 주었다.

A portrait of Franck Vigroux, a bald man with blue eyes, wearing a plaid shirt. The image is framed by a dark border.

## 프랑크 비그루

Franck Vigroux

콘셉트·음악

프랑크 비그루는 실험적인 전자 음악부터 현대 작곡 및 음악극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업을 하는 아티스트다. 그의 음악은 구조적인 긴장감, 박자, 전자적인 텍스처 및 사운드 탐색에 있어서 매우 개인적인 접근 방식으로 구성된다. 그는 솔로 작업 뿐 아니라, 엘리엇 샤프(Elliott Sharp), 미카 바이니오(Mika Vainio), 라인홀트 프리들(Reinhold Friedl), 아르노바(Ars Nova)와 같은 아티스트들과 협업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 quentin chevrier

비그루의 독창성은 뉴미디어를 공연 예술에서 통합하는 예술적인 접근 방식으로 부터

제작하고 있다.	
공연정보	
공연일정	10.07.SAT 7pm 10.08.SUN 3pm
장 르	사운드 ●●●● 무용 ●●● 기술 ●●● 영상 ●●●
콘셉트·음악	프랑크 비그루
관람연령	만 13세 이상(중학생 이상)
공연장소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소요시간	60분

Organized by  Arts Korea Lab  
주관 Hosted by  Arts Korea Lab  
Supported by   
Cooperated with 

# SPAN

# 이들은 그냥 존재한다

THEY JUST EXIST



© 최강 프로젝트

10.15. 일

10.17. 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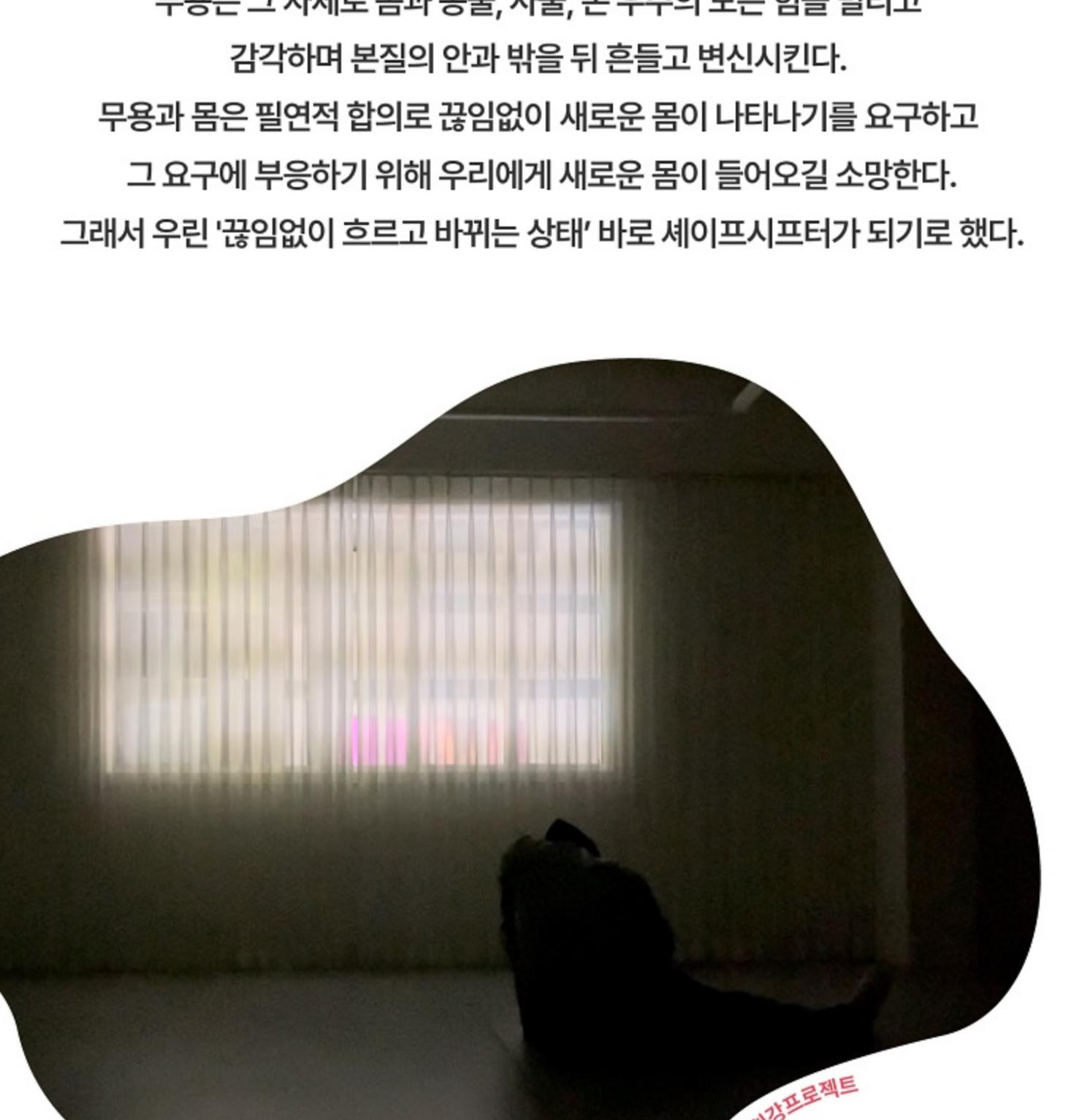
국립정동극장\_세실

최강 프로젝트

Choi x Kang Project

장르 무용  
무용 다원

seoul performing arts festival



© 최강프로젝트

"우린 끊임없이 흐르고 바뀌는 상태"

바로 세이프시프터(Shape Shifter)가 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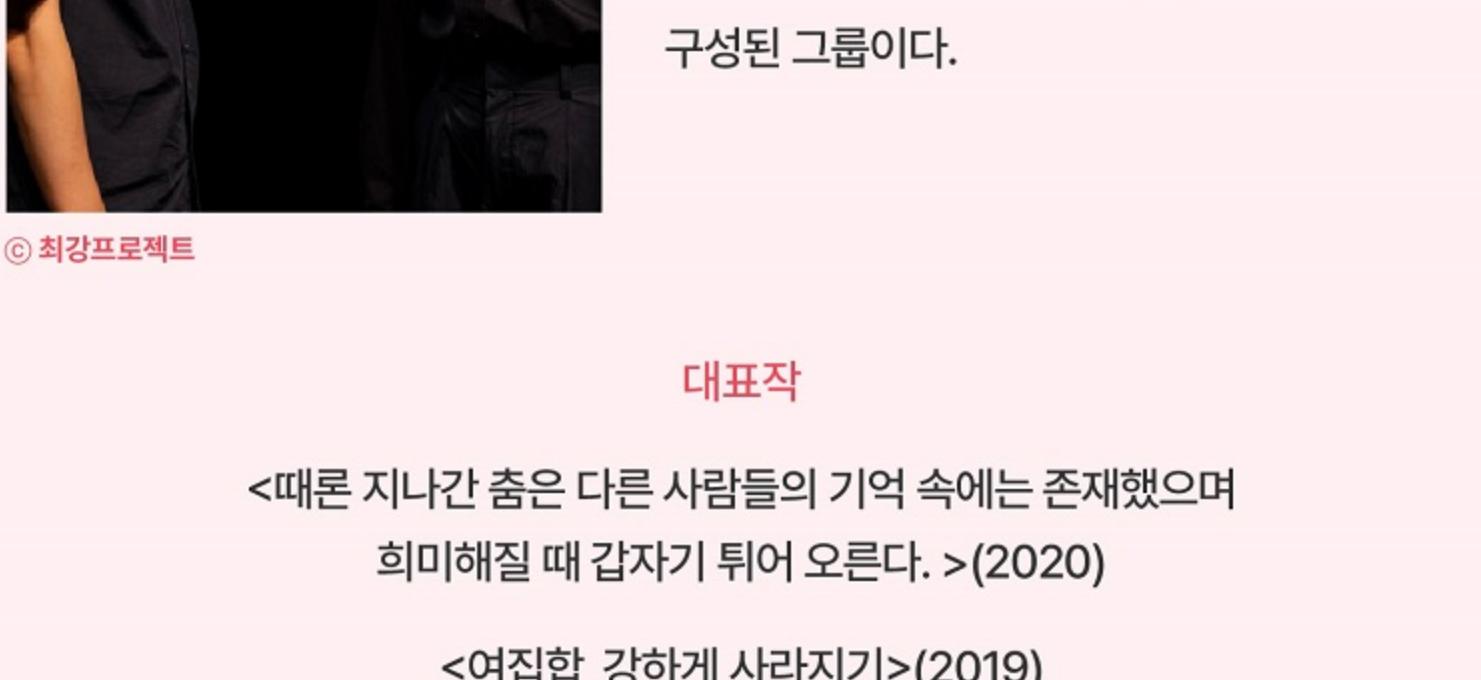
이 작업은 '우리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질문을 던진다.

그 질문에 대해 작가 스스로 몸, 정신의 상태를 탈주하며 끊임없이

어디론가 흐른다. 여러 가지 몸을 입고자 하는 것은 잠재적 무의식의 발견과

예민한 감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동적 몸으로써 하나의 고정된

정체성의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움을 획득하기 위한 몸부림의 과정이다.



## 최강 프로젝트

### Choi x Kang Project

몸으로부터 발생되는 무용의 방식과 여러 표현 방식으로 도출되는 다른 장르들의 각 매체적 특성이 부딪혀서 만났을 때 발생되는 틈, 그 사이에서 방법을 찾아가고 있으며 전통적 방법에서 벗어나는 방향을 찾고자 한다.

새로운 보기 형태를 제시함으로써 규정된 미를 바라보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생각하는 몸'으로써의 춤을 지향하고 있다.

© 최강프로젝트

#### 작품내용

아름다움 없이, 깨달음 없이, 애착 없이, 아무것도 아닌 지속을 위한 단순한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무용은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나?"

"인내심을 가지고 감각이 예민해질 때까지 기다려보라.

그러면 세상이 미지의 것들로 가득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 이든 필포츠 Eden Phillpotts -

우리는 이것에 대해 관계 맺고, 맥락을 만들어가며, 여러 가지 소문을 불러일으킨다.

무용은 그 자체로 몸과 동물, 사물, 온 우주의 모든 힘을 빌리고

감각하며 본질의 안과 밖을 뒤흔들고 변신시킨다.

무용과 몸은 필연적 합의로 끊임없이 새로운 몸이 나타나기를 요구하고

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에게 새로운 몸이 들어오길 소망한다.

그래서 우린 '끊임없이 흐르고 바뀌는 상태' 바로 세이프시프터가 되기로 했다.

© 최강프로젝트

#### 대표작

<때론 지나간 춤은 다른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존재했으며

희미해질 때 갑자기 튀어 오른다. >(2020)

<여집합\_강하게 사라지기>(2019)

<컴플먼트: 안쪽과 바깥쪽>(2018)

<여집합 집집집 합집여>(2016)

<여집합 집집집 합집여> 2018 요코하마 댄스컬렉션 '심사위원상'

<기초무용(Basic Dance)> 2015 서울국제공연예술제 댄스컬렉션 '안무상'

#### 작품내용

© 최강프로젝트

#### 작품내용

아름다움 없이, 깨달음 없이, 애착 없이, 아무것도 아닌 지속을 위한

단순한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무용은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나?"

"인내심을 가지고 감각이 예민해질 때까지 기다려보라.

그러면 세상이 미지의 것들로 가득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 이든 필포츠 Eden Phillpotts -

우리는 이것에 대해 관계 맺고, 맥락을 만들어가며, 여러 가지 소문을 불러일으킨다.

무용은 그 자체로 몸과 동물, 사물, 온 우주의 모든 힘을 빌리고

감각이며 본질의 안과 밖을 뒤흔들고 변신시킨다.

무용과 몸은 필연적 합의로 끊임없이 새로운 몸이 나타나기를 요구하고

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에게 새로운 몸이 들어오길 소망한다.

그래서 우린 '끊임없이 흐르고 바뀌는 상태' 바로 세이프시프터가 되기로 했다.

© 최강프로젝트

#### 작품내용

© 최강프로젝트

#### 작품내용

아름다움 없이, 깨달음 없이, 애착 없이, 아무것도 아닌 지속을 위한

단순한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무용은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나?"

"인내심을 가지고 감각이 예민해질 때까지 기다려보라.

그러면 세상이 미지의 것들로 가득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 이든 필포츠 Eden Phillpotts -

우리는 이것에 대해 관계 맺고, 맥락을 만들어가며, 여러 가지 소문을 불러일으킨다.

무용은 그 자체로 몸과 동물, 사물, 온 우주의 모든 힘을 빌리고

감각이며 본질의 안과 밖을 뒤흔들고 변신시킨다.

무용과 몸은 필연적 합의로 끊임없이 새로운 몸이 나타나기를 요구하고

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에게 새로운 몸이 들어오길 소망한다.

그래서 우린 '끊임없이 흐르고 바뀌는 상태' 바로 세이프시프터가 되기로 했다.

© 최강프로젝트

#### 작품내용

© 최강프로젝트

#### 작품내용

아름다움 없이, 깨달음 없이, 애착 없이, 아무것도 아닌 지속을 위한

단순한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무용은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나?"

"인내심을 가지고 감각이 예민해질 때까지 기다려보라.

그러면 세상이 미지의 것들로 가득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 이든 필포츠 Eden Phillpotts -

우리는 이것에 대해 관계 맺고, 맥락을 만들어가며, 여러 가지 소문을 불러일으킨다.

무용은 그 자체로 몸과 동물, 사물, 온 우주의 모든 힘을 빌리고

감각이며 본질의 안과 밖을 뒤흔들고 변신시킨다.

무용과 몸은 필연적 합의로 끊임없이 새로운 몸이 나타나기를 요구하고

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에게 새로운 몸이 들어오길 소망한다.

그래서 우린 '끊임없이 흐르고 바뀌는 상태' 바로 세이프시프터가 되기로 했다.

© 최강프로젝트

#### 작품내용

© 최강프로젝트

#### 작품내용

아름다움 없이, 깨달음 없이, 애착 없이, 아무것도 아닌 지속을 위한

단순한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무용은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나?"

"인내심을 가지고 감각이 예민해질 때까지 기다려보라.

그러면 세상이 미지의 것들로 가득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 이든 필포츠 Eden Phillpotts -

우리는 이것에 대해 관계 맺고, 맥락을 만들어가며, 여러 가지 소문을 불러일으킨다.

무용은 그 자체로 몸과 동물, 사물, 온 우주의 모든 힘을 빌리고

감각이며 본질의 안과 밖을 뒤흔들고 변신시킨다.

무용과 몸은 필연적 합의로 끊임없이 새로운 몸이 나타나기를 요구하고

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에게 새로운 몸이 들어오길 소망한다.

그래서 우린 '끊임없이 흐르고 바뀌는 상태' 바로 세이프시프터가 되기로 했다.

© 최강프로젝트

#### 작품내용

© 최강프로젝트

#### 작품내용

아름다움 없이, 깨달음 없이, 애착 없이, 아무것도 아닌 지속을 위한

단순한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무용은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나?"

"인내심을 가지고 감각이 예민해질 때까지 기다려보라.

그러면 세상이 미지의 것들로 가득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 이든 필포츠 Eden Phillpotts -

우리는 이것에 대해 관계 맺고, 맥락을 만들어가며, 여러 가지 소문을 불러일으킨다.

무용은 그 자체로 몸과 동물, 사물, 온 우주의 모든 힘을 빌리고

감각이며 본질의 안과 밖을 뒤흔들고 변신시킨다.

무용과 몸은 필연적 합의로 끊임없이 새로운 몸이 나타나기를 요구하고

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에게 새로운 몸이 들어오길 소망한다.

그래서 우린 '끊임없이 흐르고 바뀌는 상태' 바로 세이프시프터가 되기로 했다.

© 최강프로젝트

#### 작품내용

© 최강프로젝트

#### 작품내용

아름다움 없이, 깨달음 없이, 애착 없이, 아무것도 아닌 지속을 위한

단순한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무용은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나?"

"인내심을 가지고 감각이 예민해질 때까지 기다려보라.

그러면 세상이 미지의 것들로 가득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 이든 필포츠 Eden Phillpotts -

우리는 이것에 대해 관계 맺고, 맥락을 만들어가며, 여러 가지 소문을 불러일으킨다.

무용은 그 자체로 몸과 동물, 사물, 온 우주의 모든 힘을 빌리고

감각이며 본질의 안과 밖을 뒤흔들고 변신시킨다.

무용과 몸은 필연적 합의로 끊임없이 새로운 몸이 나타나기를 요구하고

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에게 새로운 몸이 들어오길 소망한다.

그래서 우린 '끊임없이 흐르고 바뀌는 상태' 바로 세이프시프터가 되기로 했다.

© 최강프로젝트

#### 작품내용

© 최강프로젝트

#### 작품내용

아름다움 없이, 깨달음 없이, 애착 없이, 아무것도 아닌 지속을 위한

단순한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무용은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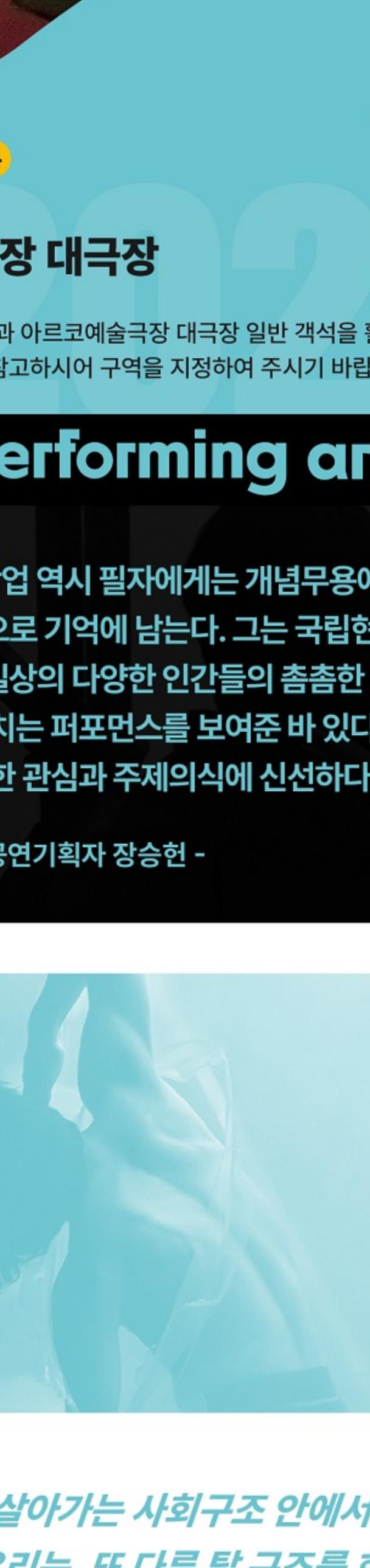
"인내심을 가지고 감각이 예민해질 때까지 기다려보라.

그러면 세상이 미지의 것들로 가득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 이든 필포츠 Eden Phillpotts -

# 구조와 의식

## STRUCTURE AND CONSCIOUSN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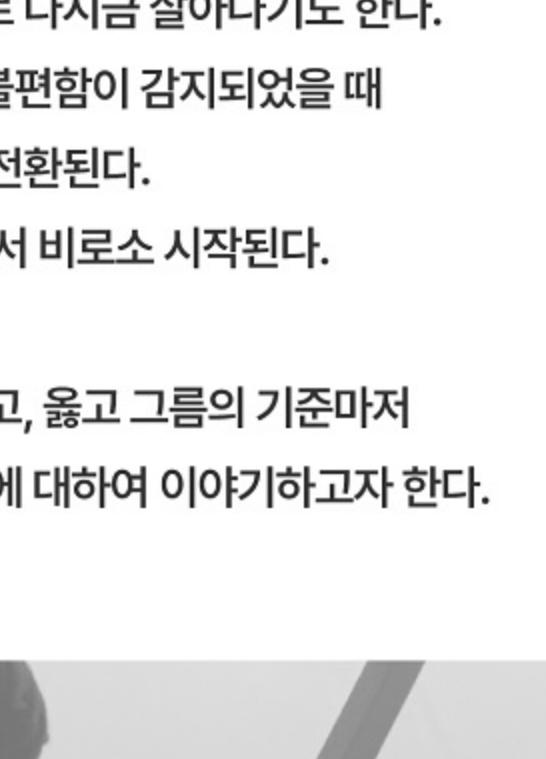


강요찬  
YOCHANKANG

장르

10.19. 목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본 공연은 무대 위 객석과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일반 객석을 활용하는 공연입니다.

예매 시 좌석배치도를 참고하시어 구역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seoul performing arts festival

<구조와 의식> 작업 역시 필자에게는 개념무용에 대한 거부감을 완화시켜준 작업으로 기억에 남는다. 그는 국립현대무용단 <we are>에서 일상의 다양한 인간들의 촘촘한 놀이정신 및 움직임과 개성 넘치는 퍼포먼스를 보여준 바 있다. 이러한 그의 다양한 관심과 주제의식에 신선하다는 표현과 격려를 전한다.

- 2022 컬쳐캠프 공연기획자 장승현 -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구조 안에서 의식을 가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또 다른 탈 구조를 희망하게 된다.”

탄생의 순간부터 이 글을 읽고 있는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는 모두 구조 안의 존재로 살아왔다. 정해진 목적 없이 세상에 내던져진 우리는 구조의 억압으로 인해 무너지기도 구조의 관용으로 다시금 살아나기도 한다. 이러한 아이러니 사이에서 형체를 알 수 없는 불편함이 감지되었을 때 구조에 대한 무의식은 의식으로 전환된다. 그렇다 자유를 향한 몸짓은 바로 이 지점에서 비로소 시작된다.

<구조와 의식>은 구조와 인간의 관계를 조명하고, 옳고 그름의 기준마저 희미해진 시대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성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

작품은 구조를 다양하게 형상화될 수 있는 복합적인 개념으로 바라본다. 같은 맥락에서 작품은 여러 형태의 오브제로 구조를 시각화하고 그 안에 놓인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변화 과정을 포착한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저마다의 구조를 부수며 성장하고 있다.

한 개인의 의식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치열했던 시간을 지나 함께 작품을 만든 이들의 이야기가 되었다. 개인의 경험이 곧 모두의 경험이 되듯 이 작품이 비로소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글\_이창준, <구조와 의식> 드라마투루기



강요찬  
YOCHANKANG

안무

움직임과 사고, 사운드와 장르적 표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어떠한 기준에 국한되어 있지 않음을 추구한다. 또한 ‘넓은 가치의 목적을 가진 작업’을 통해 우리의 삶과 가장 밀접한 곳에서 일어났던 일들과 일어나고 있는 일들, 앞으로 일어날 일들까지 고찰한다.

머무르고 안주하는 안정감 있는 시간보다는 특별하고 신선한 기회에 노출된 불완전한 시간과 경험을 거리끼지 않으며 즐거이 여긴다.

낯설고 특이한 순간들을 포착하고 기록하여, 몸을 통해 낯선 순간을 특별한 시간으로 치환하는 것에 예술적 소명을 가지고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오스트리아 SEAD예술학교 안무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월간아트페스티벌 아트디렉터와 한양대, 호서실용예술학교에서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작품내용

자신이 속한 구조의 모순을 인지한 인간은 탈출을 시도하고 탈출이라는 동기는 구조의 해체를 이끌어낸다. 억압으로부터 벗어난 인간은 의식이 발현된 최초의 순간부터 자신이 그려왔던 이상을 현실에 구현하려한다.

그러나 구조 안의 존재가 온전히 자유로워지기란 불가능에 가까워 보인다.

그렇게 이상을 향한 도전은 모호성을 품은 또 하나의 구조라는 의도에 어긋난 결과물을 남기고 새로운 세계로부터 외면당한 인간은 자신의

태생적 한계를 다시 한번 확인할 뿐이다.

그렇다면 최초의 의식과 탈출, 새로운 시도로부터 남겨진 결과물은 본래의 의도와 무관하기에 무의미한 것일까? 온전한 자유를 얻어내지 못했을 때 그 과정 속의 치열했던 움직임은 가치를 상실하는 것일까?

자유를 향한 시도와 그 실패의 끝자락에 남아있는 건 언제나 삶의 허무일 뿐일까?

작품은 구조를 다양하게 형상화될 수 있는 복합적인 개념으로 바라본다.

같은 맥락에서 작품은 여러 형태의 오브제로 구조를 시각화하고 그 안에 놓인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변화 과정을 포착한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저마다의 구조를 부수며 성장하고 있다.

한 개인의 의식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치열했던 시간을 지나 함께 작품을 만든 이들의 이야기가 되었다. 개인의 경험이 곧 모두의 경험이 되듯 이 작품이 비로소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글\_이창준, <구조와 의식> 드라마투루기

작품내용

공연일정 10.19.THU 8pm

장 르 콘셉트 퍼포먼스

무용

연극

다원

체험

안 무 강요찬

공연장소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관람연령 만 13세 이상(중학생 이상)

소요시간 60분

초 연 2022년도. 아트스탠드 서울/대한민국 국 가 대한민국

작품내용

2019년 서울국제공연예술제(SPAF) 국내초청작<The answer>로 한국에 돌아와 2020년 서울무용제 최우수상<집속의 집>연출, 2021년 <The table>

<직선과 곡선><The ball><Foot note>, 2022년 서울문화재단 지원 <구조와

의식>, 국립현대무용단 스텝업 지원 <we are> 안무 및 연출을 하며 자신만의

장르를 만들어가고 있다. 2023년 하반기 이스라엘 Jaffa to Agripas Festival 해외초청작으로 <The table3> 공연 예정이다.

작품내용

작품은 구조를 다양하게 형상화될 수 있는 복합적인 개념으로 바라본다.

같은 맥락에서 작품은 여러 형태의 오브제로 구조를 시각화하고 그 안에 놓인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변화 과정을 포착한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저마다의 구조를 부수며 성장하고 있다.

한 개인의 의식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치열했던 시간을 지나 함께

작품을 만든 이들의 이야기가 되었다. 개인의 경험이 곧 모두의 경험이 되듯

이 작품이 비로소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글\_이창준, <구조와 의식> 드라마투루기

작품내용

작품은 구조를 다양하게 형상화될 수 있는 복합적인 개념으로 바라본다.

같은 맥락에서 작품은 여러 형태의 오브제로 구조를 시각화하고 그 안에 놓인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변화 과정을 포착한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저마다의 구조를 부수며 성장하고 있다.

한 개인의 의식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치열했던 시간을 지나 함께

작품을 만든 이들의 이야기가 되었다. 개인의 경험이 곧 모두의 경험이 되듯

이 작품이 비로소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글\_이창준, <구조와 의식> 드라마투루기

작품내용

작품은 구조를 다양하게 형상화될 수 있는 복합적인 개념으로 바라본다.

같은 맥락에서 작품은 여러 형태의 오브제로 구조를 시각화하고 그 안에 놓인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변화 과정을 포착한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저마다의 구조를 부수며 성장하고 있다.

한 개인의 의식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치열했던 시간을 지나 함께

작품을 만든 이들의 이야기가 되었다. 개인의 경험이 곧 모두의 경험이 되듯

이 작품이 비로소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글\_이창준, <구조와 의식> 드라마투루기

작품내용

작품은 구조를 다양하게 형상화될 수 있는 복합적인 개념으로 바라본다.

같은 맥락에서 작품은 여러 형태의 오브제로 구조를 시각화하고 그 안에 놓인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변화 과정을 포착한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저마다의 구조를 부수며 성장하고 있다.

한 개인의 의식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치열했던 시간을 지나 함께

작품을 만든 이들의 이야기가 되었다. 개인의 경험이 곧 모두의 경험이 되듯

이 작품이 비로소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글\_이창준, <구조와 의식> 드라마투루기

작품내용

작품은 구조를 다양하게 형상화될 수 있는 복합적인 개념으로 바라본다.

같은 맥락에서 작품은 여러 형태의 오브제로 구조를 시각화하고 그 안에 놓인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변화 과정을 포착한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저마다의 구조를 부수며 성장하고 있다.

한 개인의 의식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치열했던 시간을 지나 함께

작품을 만든 이들의 이야기가 되었다. 개인의 경험이 곧 모두의 경험이 되듯

이 작품이 비로소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글\_이창준, <구조와 의식> 드라마투루기

작품내용

작품은 구조를 다양하게 형상화될 수 있는 복합적인 개념으로 바라본다.

같은 맥락에서 작품은 여러 형태의 오브제로 구조를 시각화하고 그 안에 놓인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변화 과정을 포착한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저마다의 구조를 부수며 성장하고 있다.

한 개인의 의식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치열했던 시간을 지나 함께

작품을 만든 이들의 이야기가 되었다. 개인의 경험이 곧 모두의 경험이 되듯

이 작품이 비로소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글\_이창준, <구조와 의식> 드라마투루기

작품내용

작품은 구조를 다양하게 형상화될 수 있는 복합적인 개념으로 바라본다.

같은 맥락에서 작품은 여러 형태의 오브제로 구조를 시각화하고 그 안에 놓인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변화 과정을 포착한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저마다의 구조를 부수며 성장하고 있다.

한 개인의 의식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치열했던 시간을 지나 함께

작품을 만든 이들의 이야기가 되었다. 개인의 경험이 곧 모두의 경험이 되듯

이 작품이 비로소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글\_이창준, <구조와 의식> 드라마투루기

작품내용

작품은 구조를 다양하게 형상화될 수 있는 복합적인 개념으로 바라본다.

같은 맥락에서 작품은 여러 형태의 오브제로 구조를 시각화하고 그 안에 놓인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변화 과정을 포착한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저마다의 구조를 부수며 성장하고 있다.

한 개인의 의식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치열했던 시간을 지



# 웰컴투유어코리아 WELCOME TO YOUR KOREA



10.20. 금

-10.22.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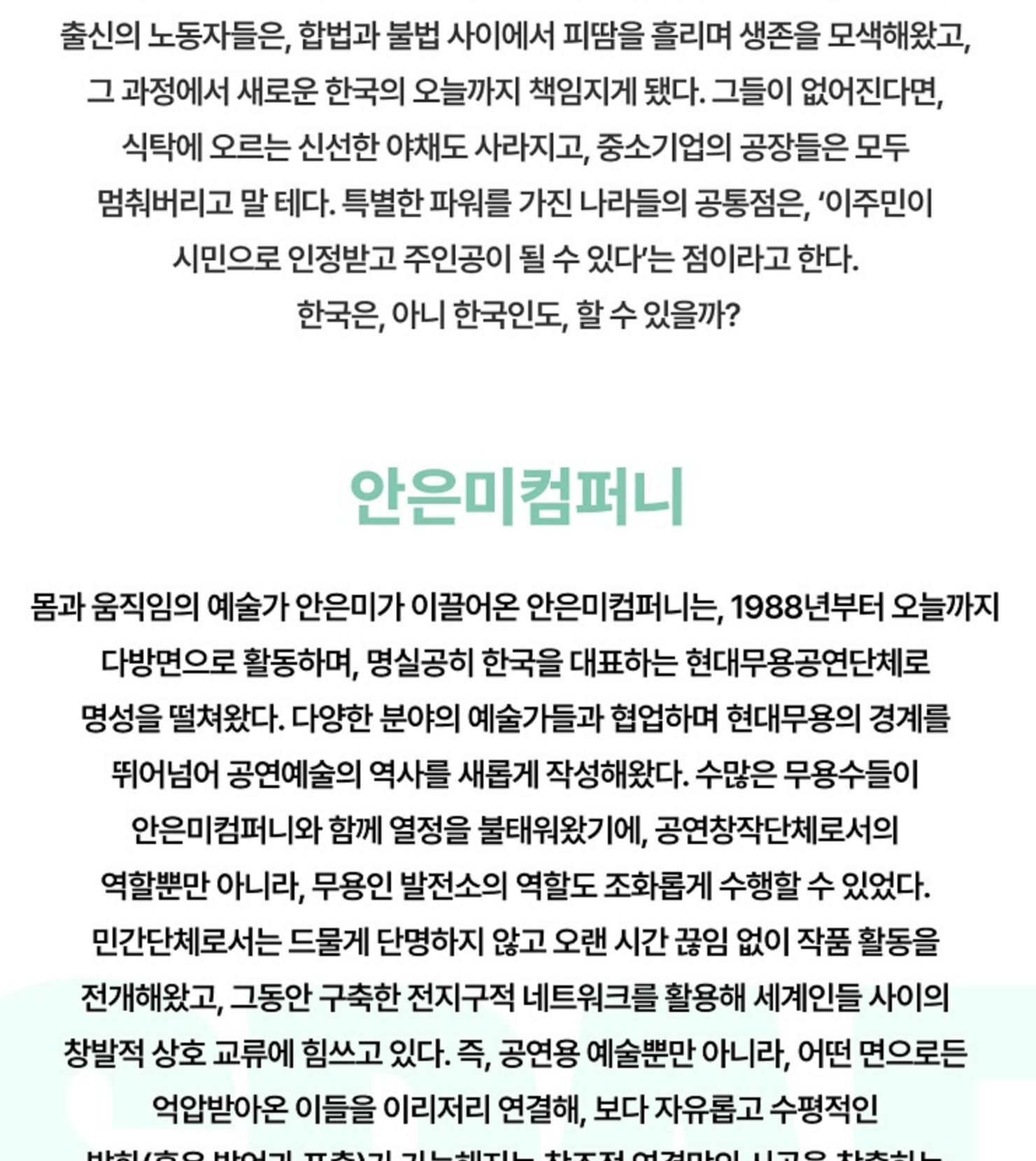
안은미컴퍼니

Ahn Eun-Me Company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장르 무용 ●●●●●

## seoul performing arts festival



© 안은미컴퍼니

'당신이 고향으로 여기는 나라는 어디인가요?  
당신만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웰컴투유어코리아 Welcome to Your Korea>는,

한국에 거주하는 아세안 이주민이 주인공이 되는 프로젝트다.

안은미컴퍼니는, 한국 사회의 내일로 가는 더 나은 길을 모색한다.

평범한 사람들과 협업하며 문제적 상황을 창출하고자 하는,

특별한 눈과 귀와 창조력을 가진 아세안 국가의 안무자

4명을 초청하기로 했다. 그들은 자국 출신 이주민들을 만나고,

참가자/협업자를 선발한 뒤, 제각각의 소통 방식을 통해

하나의 작품(혹은 예술적 상황)을 연출·발표한다.



### 작품내용

안은미가 2019년부터 꾸준히 탐구해온 작업의 주제 가운데 하나는 아시아다. 아시아의 밀레니얼 세대를 주인공으로 한 작업, 두 차례에 걸친 인도네시아 무용수들과의 작업으로, 이미 국제적 호응을 얻었다. 지난해부터는, 우리 한국을 포함하는 아시아 대륙에 주목해,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의 예술가(안무자)를 만나 대화를 이어왔다. 조사연구여행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태어난 문제적 신작이, <웰컴투유어코리아 Welcome to Your Korea>다.

어느새 우리 사회의 필수적 일부가 된 아시아의 형제자매들. 특히 동남아시아 출신의 노동자들은, 합법과 불법 사이에서 피땀을 흘리며 생존을 모색해왔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한국의 오늘까지 책임지게 됐다. 그들이 없어진다면,

식탁에 오르는 신선한 야채도 사라지고, 중소기업의 공장들은 모두

멈춰버리고 말 테다. 특별한 파워를 가진 나라들의 공통점은, '이주민이

시민으로 인정받고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한다.

한국은, 아니 한국인도, 할 수 있을까?

### 안은미컴퍼니

몸과 움직임의 예술가 안은미가 이끌어온 안은미컴퍼니는, 1988년부터 오늘까지 다방면으로 활동하며, 명실공히 한국을 대표하는 현대무용공연단체로 명성을 떨쳐왔다.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과 협업하며 현대무용의 경계를 뛰어넘어 공연예술의 역사를 새롭게 작성해왔다. 수많은 무용수들이

안은미컴퍼니와 함께 열정을 불태워왔기에, 공연창작단체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무용인 발전소의 역할도 조화롭게 수행할 수 있었다.

민간단체로서는 드물게 단명하지 않고 오랜 시간 끊임 없이 작품 활동을

전개해왔고, 그동안 구축한 전지구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세계인들 사이의

창발적 상호 교류에 힘쓰고 있다. 즉, 공연용 예술뿐만 아니라, 어떤 면으로든

억압받아온 이들을 이리저리 연결해, 보다 자유롭고 수평적인

발화(혹은 발언과 표출)가 가능해지는 창조적 연결망의 시공을 창출하는

일을 목표로 삼고 있다.

### 대표작

<드래곤즈>(2021), <거시기모놀로그>(2019), <안은미의 북.한.춤.>(2018),  
<아저씨들을 위한 무책임한 팬스>(2013), <사심없는 팬스>(2012),

<조상님께 바치는 댄스>(2011), <심포카 바리-이승편>(2007)

### 수상이력

2022.01.27 <2021 무용분야 예술대상 : 현대무용 부문>

2019.10.18. <제68회 서울특별시 문화상 : 무용 부문>

2019.10.17. <2019 올해의 양성평등 문화인상>, 여성신문

2019.10.08. <제38회 세종문화상: 예술 부문>, 문화체육관광부

2019.03.27. <2019 국제극예술협회 특별상>, 국제극예술협회

2016.04.29. <한-불 문화상>, 주 프랑스 한국대사관 & 파리 외교관클럽

### 공연정보

공연일정 10.20.FRI 7:30pm 장 르 무용 ●●●●●  
10.21.SAT 4pm  
10.22.SUN 4pm

안 무 안은미 공연장소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관람연령 만 7세 이상(초등학생 이상) 소요시간 70분

초 연 2023 서울국제공연예술제 국 가 대한민국,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후 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KOFICE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